

창사 55주년
光州日報 테마

미래, 만들어 가자

문화수도·J프로젝트 등 광주·전남 곳곳 융틀임
‘낙후’ 푸념 털고 역량 모아 ‘풍요로운 미래’ 열어야

광주·전남은 지금 선택의 길목에 서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낙후의 굴레를 그대로 걸머지고 갈 것인가,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광주·전남에서는 우리의 명운을 바꿀 ‘대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광주는 한국의 문화수도이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우리의 앞날을 환하

게 비춰줄 관광산업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다. 한반도 서남권에 위치한 전남의 미래도 밝다.
양 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다도해 등 비교우위자원이 풍부한 전남에서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 유치 전망이 한층 밝아진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낙후 탈출의 기회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도 지역경쟁력을 높여 줄 걸림돌이다.
광주일보가 2007년 벽두 제시한 ‘이젠 실리다’는 구호는 사회 곳곳의 의식변화를 불러와 속명처럼 안고 살았던 낙후를 떨치고 운탄한 내일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기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수 십년만에 소외와 절망의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눈 앞에 다가와 있다. 그러나 가슴 설레는 이같은 미래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체념과 푸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가슴부른 미래는 신기부일 뿐이다. 광주·전남 시·도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의지를 가질 때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밝힐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 보낼 것인가, 아니면 빛나는 미래를 활짝 열어젖힐 것인가.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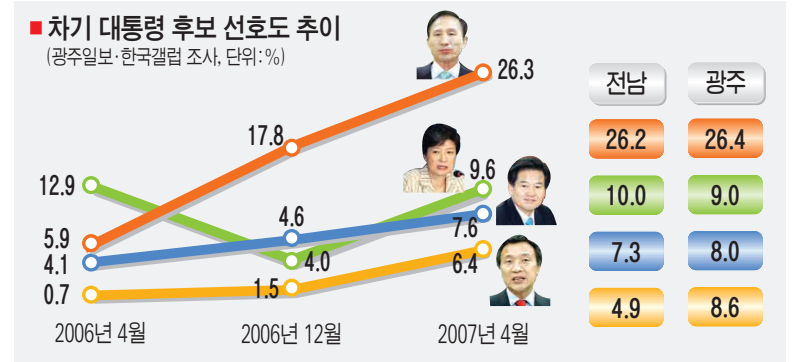
미래의 풍요를 위해 아껴놓은 땅 광주와 전남에서 내일의 번영을 약속하는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빈곤과 소외를 훌훌 털고 지역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와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해남 화원반도를 낀 목포 앞바다에 배들이 일으키는 흰찬 물살이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하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명박 26.3% 선두

대선후보 선호도... 박근혜 9.6% 정동영 7.6%

광주일보·한국갤럽
광주·전남 의식조사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가운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가장 선호하며, 범여권 단일 후보보다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퇴출제”에는 4명 중 3명(73.6%)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다.
광주일보는 창사 55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한국갤럽에 의뢰, 광주·전남 지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17명을 대상으로 ‘17대 대선 및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주민의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를 실시했다.
▶해설 6·7면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 26.3%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 그 뒤를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9.6%,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7.6%,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6.4%를 각각 기록해 중위권을 형성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2.9%)와 김금실 전 법무부장관(2.5%),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2.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2.0%) 등이 2%대의 지지를 얻었고 나머지 후보는 그 이하에 머물렀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본보 여론조사에서 고 건 전 국무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지난 1월 고 전 총리의 출마 포기 이후 지지율을 10%p 가까이 끌어올리며 1위로 나섰다.
차기 대선에서 범여권 단일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가 대결할 경우 누가

당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1.1%가 ‘한나라당 후보’를 꼽았고 ‘범여권 단일 후보’는 21.5%에 그쳤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이 18.9%,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 11.8%, ‘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 11.5% 등으로 경제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강 일로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43.7%, ‘잘못하고 있다’ 41.9%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에 힘입어 1년 여만에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31.5%로

가장 높았고 열린우리당 16.9%, 한나라당 11.5%, 민주노동당 10.9% 순이었다. 지난해 말 본보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13.3%)을 기록했던 한나라당은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정권에서’라는 응답이 50.5%로 ‘이번 정권’(41.7%)보다 많은 반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이번 정권’ 46.7%, ‘차기 정권’ 44.3%로 팽팽히 맞섰다.
자신의 생활수준은 ‘중하층’(38.8%)과 ‘중층’(35.1%), 이념적 성향은 ‘진보’(35.5%)와 ‘중도’(34.4%)라는 응답이 각각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정수식기자 who@kwangju.co.kr

창사특집 지면 안내

대선주자 청사진	4~5면	광주·전남의 미래	16~17면
시·도민 의식조사	6~7면	세계의 기업도시	18면
호남인맥 대해부	8면	오지호유작 둘러본자	20면
경제 마인드를 갖자	13면	광일 시사만화 55년	22면
광주 미래 일자리	14면	광주체전 준비 이렇게	30면

우암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총본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암총본실 1588-5051 ▶ T.(061)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 미술·작문·논술(예선)
5월1일~5월19일 접수
▶ 현장예선심기대회
5월9일까지 접수
[5월11일, 금호패밀리랜드]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 · 222-8111

光州日報 창사 55 1952-2007

퍼져가는 열풍변천
11.11 기념날레 사전설명회
프리도호텔 3층 크리스탈홀



남도가락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은행

구성진 남도가락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듯
광주은행의 소중한 사랑가락이
지역사회에 울려 퍼집니다.

하얀 종이 위에 아름다운 그림이 채워지듯
고객의 마음 안에 광주은행의 밝은 모습을
하나 둘씩 채워갑니다.

광주은행은 구성진 남도가락의 정겨움으로
지역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으로 남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
광주은행
www.kjbank.com